전남매일

www.jndn.com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제8924호 (음력 6월 29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톡톡뉴스

식용유·캔제품 내달부터 오른다

8월부터 CJ제일제당, 동원F&B 일부제품의 가격이 오른다.

CJ제일제당은 8월부터 카놀라유(500mL) 의 편의점 가격을 5,500원에서 7,100원으로 29.1% 올리고, 포도씨유(500mL)도 8,800원 에서 1만500원으로 19.3% 인상한다. 또 올리 브유(500mL)는 1만1,000원에서 1만2,400원 으로 12.7% 인상한다.

대표 캔 제품의 편의점 가격도 8월 1일부터 동시에 오른다. CJ제일제당은 스팸 클래식 (200g) 가격을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올린다. 동원F&B도 리챔 오리지널 (200g)의 가격을 5,800원에서 6,200원으로 6.9% 인상한다. 동원참치(100g) 가격도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오른다.

- 그레픽 경제



자녀 1명 양육 비용 월 72만1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가족과 출 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999가구 중에 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녀가 있는 4,055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기준 자녀 양육비 용을 설문 조사한 결과, 1명당 월평균 72만 1,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사교육비가 월 26만원으로 기타비 용(월 34만9,000원) 다음으로 많았다.

가구 특성별로는 가구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 수록,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양육 지출 비용이 많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 ISO 9001 인증 획득

제품 서비스 만족·적합도 '우수' 구체적 품질경영시스템 체계 구축 "고객이 만족하는 자동차 생산"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품질경영 시스템(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26일 GGM에 따르면 GGM은 고객에게 제공 하는 제품 서비스 만족도와 적합도 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ISO 9001인증을 획득, 이 날 오전 10시 30분 본사 상생홀에서 인증수여 식을 진행했다.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규격을 제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 다. 이중 ISO 9001 인증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동 시에 지속해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평 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GGM은 품질경영시스 템을 도입해 해당 사업장 운영이 국제표준 요 구사항에 부합해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더불어 고객경영, 상생경영, 신뢰경영 이라는 경영이념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 품질 경영,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품질 환경 목표 수립 및 주기적인 점검 평 가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체 계를 구축한 것도 큰 점수를 받았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상생 과 최고 품질로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서 위 상을 다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이번에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성 과"라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질경영 요구사항에 부합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GGM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광주시 와 현대자동차 등 37개 주주사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으로, 상 생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광주글로벌모터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수여식 2022년 7월 26일(화) _ 인증기관 : KM® 외국광왕의등원

26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오른쪽)와 황은주 한국경영 인증원 대표이사가 인증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이다. GGM은 지난해 9 에서도 올 상반기에 2만 2,500대를 생산하는 월 15일부터 신차 '캐스퍼' 양산을 시작한 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 고 있다.

등 누적 생산 3만 5,000대를 돌파하며 순항하 /오지현 기자

"대형마트 노동자들, 일요일 휴식 지켜달라"

의무휴업 폐지 방안 반발 서비스산업노조 기자회견

광주·전남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정부의 '대 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 역본부는 26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허접한 포퓰리즘으로 민의를 왜곡하 는 투표를 반대한다.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더 강화하 자',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 다' 등 기업 편에 서서 노골적인 발언을 자주했 다"며 "이제는 마트노동자들의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까지 뺏어가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제안(대통령실 새 소통창구 홈페

이지) 투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마치 민의를 살피기 위한 새로운 소통창구라고 만들었으나, 국민제안 심사위 구성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 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마치 국민의 뜻 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마트노동 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며 "마트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임채민 기자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4만여곳 중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 · 감면 컨설 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면 컨설팅을 신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국세청을 통해 문의하면 국세청이 인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 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해 제도 활용이 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중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 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컨설팅은 기업이 고용・설비투자 등을 한 뒤 해 경정청구를 할 때는 청구 전 컨설팅 신청이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 등을 홈택스나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 대해 세무컨설팅을 진행해왔으나, 기업이 컨 맺은 일부 기업에서 신청하는 모든 중소기업

받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일부 중소기업에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달 5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2%의 기업은 세액공제 · 감면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세목에 대해 진행하던 컨설팅을 세액공제·감 면 위주로 개편하고 대상 중소기업도 협약을 /이연수 기자

